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④ 구산선문의 주변 상황

▶ 한줄 요약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수미산문을 제외한 8개 산문은 중국의 선종오가와는 별개로 한국적 토양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구산선문, 한국적 토양 속 구축·전개

8세기 후반기에 크게 발전했던 중국 선종의 상황은 바다를 건너서 신라에까지도 전해졌다. 이에 신라불교에서는 당시까지 발전했던 교학불교 이외에도 새로운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입당하여 선법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였다. 중국 선종의 홍주종은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및 그 문하에서 전개된 선풍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서 가령 서당 지장(西堂 智藏, 735~814)은 마조 문하에서는 비교적 연령이 앞선 인물이었는데, 〈송고승전〉에 의하면 본래 율과 화엄의 학승이었다. 가령 무염(無染)은 부석사에서 석징대덕에게 화엄을 공부하였고, 무염의 제자 여엄(麗嚴)도 마찬가지였으며, 도헌(道憲)도 범체대덕에게서 화엄을 공부하였고, 도윤(道允)의 제자 절중(折中)도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으며, 혜철(慧哲)도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고, 개청(開淸)도 화엄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으며, 행적(行寂)도 해인사에서 화엄을 공부하였다.

이런 점은 신라에서 이미 화엄학을 공부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던 입당 구법승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서당한테 참문하게 된 기연을 갖기에 적절한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마조의 문하에는 교종으로부터 선종에 들어온 인물이 많았다. 서산량(西山亮)은 그 전형으로서 교학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소식을 단절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선을 공부하기 위하여 입당했던 선자들로 하여금 우선 강서지방에서 전개된 홍주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한편 8세기 후반기 무렵부터 한국에 선법이 전래된 지 백여 년이 되었을 때, 한국선의 역사는 지속하여 입당한 구법승이 귀국하면서 한국불교에 새로운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8세기 후반기의 법랑과 신행을 이어서 9세기 전반기에는 중국선의 남종선법을 전해오는 선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써 당시에 중국의 선종에서 새롭게 정통으로 자리매김하여 발전하고 있었던 남종선법은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승되었다.

8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입당 선승들 가운데서 설악 도의를 비롯하여 실상사의 홍척과 쌍계사의 진감국사 혜소 등이 소위 홍주종의 선풍을 전승하게 됨으로써 한국선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문정(門庭)을 개창할 최소한도의 여건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들을 이어서 9세기 중반에는 그 동안 입당했던 선자들이 다수 귀국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당 말기 불교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 당의 무종이 치세하던 회창 2년 842년부터 5년 845년까지 발생했던 회창의 법난(法難)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학승들은 부득이하게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귀국한 선자들은 이미 신라에서 백여 년 동안 축적된 선법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산문을 개창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구산문 혹은 구산선문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전후까지 확대해보면 구산선문 이외에도 다양한 산문이 형성되고 소멸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구산선문이 시작된 실상산문 실상사.

우선 구산선문의 형성이라는 설에 대해서도 신라 말기, 고려 초기, 의천 이후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다. 첫째는 신라 말기에 성립되었다는 설이다. 구산선문과 조계종에 관하여 이능화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되어 있는 수미산문·성주산문·가지산문 및 이미 알려져 있는 굴산산문·쌍봉산문·희양산문 등 6산문을 제시하였고, 6산문 외에 알 수가 없는 3산문에 대해서는 최치원이 쓴 '지증국사비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13산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허흥식은 이능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영수는 처음으로 구산선문에 대한 구체적인 산명과 조사 및 계승자를 정리하였지만 그에 대한 전거를 생략하였고, 나아가서 의천 이후에 나말에 성립되었던 구산선문이 통합되어 조계종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9세기 초 남종 선법 전래 늘어나
구산선문 형성시기 여러 설 존재
'선종오가와 동시대의 형성' 주목
중국禪 전승했지만 '독립적'으로

둘째는 고려 초기의 성립설이다. 김영태는 구산선문이 나말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수미산문의 경우에 932년(고려태조 15년) 이엄(870~936)에 의하여 개창되었고, 희양산문의 경우에 도헌(824~882)에 의해 개창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935년(태조18년) 긍양(878~956)에 의하여 개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산선문은 고려 초기에 성립되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산선문의 개창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셋째는 의천 이후 성립설이다. 허흥식은 그동안 학계의 통설이었던 구산선문의 산명과 조사명이 갖추어져 수록된 최초의 저술로 〈선문조사예참의문〉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나말여초의 성립설을 부정하여 나말여초의 선종계를 망라한 체계로는 볼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예참의문〉을 분석하여 구산선문과 그 조사의 설정은 의천 이전의 선종을 포괄할 수가 없는 까닭에 의천 이후를 구산선문의 성립기준으로 삼았다. 허흥식은 전거를 제시하였지만 고려 초기의 산문과 후기의 산문의 전승관계를 통시대적으로 조계종이라는 틀에 한정하였다.

보다 넓은 의미의 산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선법의 초기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구산선문 이외에도 다양한 산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첫째는 14산문의 개념이 있다. 지증대사 도헌의 비문에서는 14산문의 개념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다. 곧 신라로 귀국한 선자에 대하여 설악의 도의(道義), 남악의 홍척(洪陟), 그리고 이후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태안사의 혜철(慧哲), 혜목산의 현욱(玄昱), 지력산의 ▫문(▫聞), 쌍계사의 혜소(慧昭), 신흥사의 충언(忠彦), 용암사의 각체(覺體), 진구사의 각휴(覺休), 쌍봉산의 혜운(慧雲), 굴산사의 범일(梵日), 성주사의 무염(無染), 보리사의 ▫종(▫宗), 희양산의 도헌(道憲) 등이다.

둘째는 6산문이 개념이 있다. 광종 시대 이후 승과에 등용되었고, 선종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종계를 주도하였던 원종대사 찬유(璨幽)의 비문에 보이는 고달원(高達院), 희양원(晞陽院), 도봉원(道峯院) 등 3원, 그리고 승과에 등용되었지만 개산된 산문이 확인되지 않은 개천산 정토사 홍법국사, 승과에 등용되었던 화산 갈양사 혜거국사의 본산인 우두산 개선사, 승과에 등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암산 여흥선원(麗興禪院) 등이다.

셋째는 9산문의 개념이다. 〈고려사〉 세가 권10, 선종 원년 정월 조에 9산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곧 보제사의 승려인 정과 쌍(貞·雙) 등이 구산문에서 수학하고 있는 승도들에 대하여 진사와 같은 경우처럼 3년에 1회씩 선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보인다.

넷째는 3산문의 개념이다. 오관산 서운사의 요오선사 순지(順之), 원주 영봉산 흥법사 진공대사 충담(忠湛),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룡왕사의 보요선사(普耀禪師)의 산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산문은 개창되고 존속했던 시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구산선문 이외에도 여러 산문이 명멸했던 흔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까닭에 초기 한국선종사의 이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구산선문이 개창된 시대에 대해서는 선종오가와 동시대에 형성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중국선과 독립된 한국선법의 독자적인 면모가 담겨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소위 조사선이 정착되고 꽃을 피웠던 시대는 선종오가의 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소위 위앙종·임제종·조동종·운문종·법안종이 성립된 시기를 보면 위앙종을 필두로 하여 9세기 중엽부터 법안종을 끝으로 1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의 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해당하는 신라 말기 및 고려 초기에 형성된 구산선문의 시대를 보면 실상선문을 필두로 하여 9세기 중엽부터 수미산문을 끝으로 10세기 중엽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 점은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수미산문을 제외한 8개의 산문이 중국의 선종오가와는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수미산문을 제외한 실상산문·가지산문·사굴산문·동리산문·성주산문·희양산문·봉림산문·사자산문 등 이상 8개 산문의 조사들은 선종오가의 조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법맥을 계승하지 않고 각각 서당 지장(西堂 智藏)·서당 지장 및 백장 회해(百丈 懷海)·염관 제안(鹽官 齊安)·서당 지장·여만(如滿)·혜은(慧恩) 및 창주 신감(滄州 神鑑)·장경 회휘(章敬 懷暉)·남전 보원(南泉 普願)으로부터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수미산문은 중국의 선종오가 가운데 조동종 제2세에 해당하는 운거 도응(雲居 道膺)의 법맥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선의 영향을 전승하였으면서도 8개의 산문이 중국의 선종오가의 법맥으로부터 직접적인 전승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은 구산선문에서 전개된 선사상의 면모가 한국적인 토양 속에서 구축되었고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성주산문 무염국사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무설토론(無舌土論)에 보이는 선과 교의 차별, 사굴산문 범일국사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에 보이는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 등을 언급해볼 수가 있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선과 교의 차별에 대해서는 신라에 선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악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교학이 발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입된 시기에 필요 불가결했던 것이지만, 선법의 입장에서는 어느 모로든지 교학보다 선법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고려 후반기에 출현한 〈선문보장록〉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후자에 해당하는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법으로 사람들을 교화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단도직입의 방식인가 혹은 자상하게 이끌어주는 방식인가에 따른 분별이었다.

한편 이와 같이 구산선문을 개창했던 조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록을 남겨놓지도 않았고, 그러한 흔적도 보이지 않은 까닭에 그 선사상의 면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종사에서 찬술된 몇몇 전등사서(傳燈史書)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구산선문의 조사들에 대한 사상의 특색을 엿볼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3월 2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